올인원 종말 대비책

(살전5:1~11)

1.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2. 주의 날이 밤에 도둑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4.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7.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올인원 종말 대비책>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올인원 종말 대비책'
여러분, 올인원이 뭔지 생활 속에서 우리가 다 경험을 하고 계시지요?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하나로 뭉쳐 놓은 일체형의 물건을, 우리가 올인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올인원 샴푸 그러면,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고, 올인원 오디오 시스템이다 그러면, 플레이어와 앰프와 스피커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또 전화 복사기 Fax 프린터 이런 기능을 하나로 묶은 걸 복합기라고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올인원 복합기입니다.

자!, 종말에 대한 대비책으로 올인원 대비책이라는 게 있을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에 일어날 일, 앞의 4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굿나잇 키스를 받고 잠에 들어간 자들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지상의 입장에서 보면, 공중에서 예수님이 임하시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부활해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런 것부터가 벌써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굿나잇 키스를 받고 잠자고 있는 그 자들은 어디에서 자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부활을 하고, 그리고 공중으로 이 살아 있다가 들림을 받아 휴거를 받는 사람들은 언제냐, 그 간격이 어느 정도냐,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나서 이 휴거가 일어나는 상황은, 시간적인 갭이 동시적이냐 아니면 시간을 두고 있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자세히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휴거와 관련해서도 사람들의 논의가 쭉~ 분분하잖아요.
7년 대환란을 중심으로, 믿는 자들의 휴거라고 하는 것이 대환란 전에 일어나는 것이냐, 그 다음에 대환란 중에 3년 반이 지났을 때부터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대환란이 지난 뒤에 일어나는 것이냐.
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신천신지에 어떤 캐릭터는 뭐냐? 천년왕국은 또 무엇이냐, 논란도 많고 시시비비도 많은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예 전혀 관심 밖의 일입니다, 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실제로 일상적으로 하루하루를 살 때 종말이 갖는 의미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종말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고,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종말이 일어날까? 그리고 살아 있는 동안에는 종말에 일어날 일이 문제가 아니고,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장사해야 되고, 가정을 돌봐야 되고, 이런 일들이 급한 일들인데, 종말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종말은, 내일 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종말의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부터 일어나게 될 많은 일들이, 재림하기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해 가지고,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배도의 무리가 생기고, 배도라는 것은 기독교인 중에서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배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라 가느라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뭐 이마에 뿔 달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하는 거니까 배도의 무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재림이 있고,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고…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완전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들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사실들의 전후관계나 사실의 캐릭터나 이런 것을 완벽히 파

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건 다 암중모색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가 완전히 파악할 수도 없는 암중모색의 상태에서, 암중모색이란 나도 모르고 그도 모르는데, 서로 이 의견이 맞다 주장하고 논쟁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종말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에 가장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종말 때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이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종말 때에 일어나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종말에 일어날 일들은 다양하고 복잡하고 우리가 다 파악하기도 어렵지마는, 그 다양하고 복잡하고 파악하기도 어려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상관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성격의 일들이라도 아무 상관없이, 그 모든 사건들을 다 관통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대비책이 있다는 거예요, 올인원 대비책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깨어 있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꾸 휴거가, 7년 대환란 전에 있을 것이냐, 중에 있을 것이냐, 후에 있을 것이냐 갖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7년 대환란도 있을 것이고, 전에 있던 후에 있던 중에 있던 휴거도 있을 것이니까, 7년 환란이 앞에 일어나건 뒤에 일어나건, 아무 상관없이 그 모든 일들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올인원 대비책이 있으니까 너는, 올인원 대비책을 마음에 딱 갖고 있어라하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6.25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1살 된 아기가 이 전쟁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엄마가 움직이든, 뭐 지진이 일어났든 전쟁이 일어났든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애기가 할 수 있는 올인원 대비책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거 아닙니까?
지진이 뭐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까?, 전쟁이 뭐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까? 전쟁을 일으킨 일본사람들을 미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되는 거지요.
바로 이러한 올인원 대비책을 분명히 하고 오늘 지금을 살라는 얘기에요, 성경 말씀의 이 종

말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종말에 관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올인원 대비책 그것만 붙들고 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명확한 파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깨어 있는 겁니다, 지금.
종말이라고 하는 것,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살 것이에요.
근데,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종말이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어 있기가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4절에 말씀 보니까, 밝음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깨어 있는 것이고, 재림을 대비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밝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재림이 언제 올까하고 재림을 꼬나보면서, 마치 잠복근무하는 형사들이 범인이 언제 나타날까를 꼬나보듯이 꼬나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길은, 밝음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어둠에서 벗어나서, 밝음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깨어 있지 않은 상태는, 밤에 잠자는 것이고 밤에 취해 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언어로 한 번 바꿔 봐요.
도대체 깨어 있다는 것은 뭐고, 어둠 속에서 잠잔다는 건 무엇인가.

이 밝음과 어둠에 대한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이것도 역시 삼층 세계에 관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늘이 있고 공중이 있고 땅이 있는데, 우리 마음은 공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공중에 있는 이 마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 이후에 하늘을 향하지 않게 됨으로써, 육체가 있는 땅을 향하게 되면서, 마음이 있는 공중이 다 어둠에 갇혀 버렸습니다, 전부 이 땅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 공중과 땅 사이 경계에 십자가가 서게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세상을 빠져 나오시면서, 죽으심으로 빠져나오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음이 속해 있는 공중이 어두움으로 가득하고 있었는데, 그 어두움 속에 하늘에 닿는 터널을 뚫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빛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마음이), 세상을 등지게 되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 뚫어 놓은 그 공간 안에 있을 때, 하늘의 빛이 들어오는

빛의 세계에 있는 거니까, 깨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깨어 있는 것은 도대체 현실적으로 무얼 말합니까?
우리 마음이 소원하는 게 있잖아요, 바라는 것, 이것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깨어 있느냐 안 깨어 있느냐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게 밝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안 깨어 있는 게 어둠 속에 취해 있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도 이 세상에서 해가 뜰 때, 잠만 자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나가서 일하지.
그러나 일하고 있는데도, 그게 어둠 속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고, 깨어 있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아!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소원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지금 어두움에 취해 있는 것이고, 어둠 속에서 사로잡혀서 잠자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여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무엇인가를 내가 소원하고 있잖아요? 요게 있으면 참~ 좋겠다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취해 있는 거예요, 어둠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도 하나도 안 좋아요.
근데 난 그게 있으면, 꼭~ 좋을 것같이 느껴져, 고것만 있으면 정말 좋을 거 같고, 요것만 해결되면 내가 마음에 부담이 싹~ 사라질 것같이 느껴져요, 이게 취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루어지면 진짜 좋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질 일도 없고, 원한다고 좋아질 일도 없습니다.
내게 좋은 것은,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을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에 의해서만, 나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담 이후에 전부 타락을 해 가지고 취해버린 거예요.
어둠 속에 먹혀버린 겁니다.
그래 가지고 취한 상태에서, 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렇게 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요것이 요렇게 잘 팔리면 좋겠고, 조게 조렇게 잘 인도되면 좋겠고, 자식이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전부, 정말 고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게, 취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때, 졸도한 사람에게 코에다 암모니아를 들이대면 깜짝하고 깨우듯이, 십자가로 깨나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로 깨나서, 아니야! 이게 이루어진다고 좋을 게 아니야,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또 다음, 그것과 연관돼서 또 다른 일이 걱정거리가 생기고, 또 염려가 생기고…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십자가 너머의 그 빛의 세계로 들어가 있으면, 그 빛의 세계로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 몸을 장갑처럼 끼시고 사용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고, 빛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내 소원이 없어져요.
이 세상에서 내 소원은 없는데, 내 마음은 기쁘고 만족한 상태가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알려집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있잖아요, 소원이 있잖아요, 요게 요렇게 됐으면 좋겠고, 돈이 좀 불어났으면 좋겠고, 건강이 생겼으면 좋겠고, 요런 소원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알려지지 않습니다.
왜? 내 뜻에 의해서 하나님 뜻이 먹혀 버리니까 절대 알려지지 않아요.
그 빛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깨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궁금한 게 있어요.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 빛의 세계에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 것을 소원하지 않고, 세상 등지고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늘로만 만족하겠다고 하늘을 향해 있고, 그렇게 해서 진짜 성령님에 의해서 내 마음에 만족감이 생겨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움직이게 되고,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살아 있는 동안에 이렇게 살다가 재림하시면, 도둑처럼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뭐라 그랬어요,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것을 바라고, 어둠에 취해 가지고 어둠 속에서 돈이 좋은 줄 알고, 자식이 이렇게 돼야 행복한 줄 알고, 뭐 오래살고 건강해야 행복한 줄 알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돈~ 하다가 예수님 만날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냐 하면, 재림 때 환란이 일어나고, 7년 환란이고 뭐 신천신지, 천년왕국이 일어난다, 이런 모든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한 것은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만날 텐데, 그 만날 때에 너의 상태가 어떤 건가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만날 때에.
근데 만날 때 내 마음 속에는 온~통 지금 일주일 동안 돈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다 예수님

딱 만나는 거예요.
돈~ 하는데 예수님이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그러면 깨어 있지 않아도 되지 않나, 내가 이미 세례 받고 믿었고, 교회를 다닌 지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일주일 동안 사업이 좀 급해 가지고, 사업 생각 좀 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날 때 내가 사업하고 만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깨어 있으라는 말을 주님도 하시고, 바울선생님도 하시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왜 깨어 있으라고 그러는 겁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 오시면 어때 내가 지금 세례 받고 믿고 있는 중인데, 요즘은 좀 사업이 안 되니까 사업에 신경 썼고, 요즘은 자식이 입시철이니까 자식한테 신경 좀 쓰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뭐 일주일 동안 예수님 생각 못하고 만나면 뭐 어때, 내가 그동안 믿고 있었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라 그러면 깨어 있으라는 말을 하실 필요가 없지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딱 오셨을 때 내가 예수님 찾고 있었어야, 이게 맞닥뜨려지고 예수님과 영생의 관계로 만나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이제.
살아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에 재림이 오면, 도대체 내가 깨어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 있는 동안에는, 좋아 내가 십자가 너머에 마음을 두고, 오직 내 소원과 희망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하늘로부터만 오는 것으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는, 객관적인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살다가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죽은 다음에 재림이 오면, 내가 깨어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참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죽는 걸 예수님 믿다 죽는 사람들, 마음이 그 빛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잔다고 그러셨잖아요, 잔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과학이 발견해 낸 게 뭔지? 아인슈타인이 말한 거예요.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시간이 멈춰버린다.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빛 안에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빛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세계에서 우리의 인격이 잠자고 있게 되는 상태는, 시간이 멈춰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
모든 사람은 죽을 때의 그 마음 상태로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바울이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지금으로부터 1000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쳐요.
그러면 사도바울이 깨어날 때, '아! 3000년 동안 잘 잤네! 이러고 깨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자기가 죽을 때의 마음 상태, 그 마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 생각으로 3000년이라는 시간적인 갭은 없어지고, 3000년 뒤에 있는 재림의 시간과 딱 붙어버리면서 부활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루터와 캘빈이 죽었다, 근데 내일 만약에 재림하신다 그러면, 한 500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루터와 캘빈이 내일 부활하면서 '아! 내가 500년 동안 잘 자고 일어났네!' 이렇게 시간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루터와 캘빈이 500년 전에 죽을 그 당시에 그 생각을 가지고 깨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와 캘빈이 마침 그때에 삼위일체에 관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가 죽었으면,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만나게 되고, 캘빈이 제네바시를 혁명할 때, 돈 문제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사람들과 씨름하는 바람에, 만약에 만약에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도 못하고, 돈이라는 게 뭔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깨어나면, 돈 돈 하다가 예수님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지요, 캘빈이, 요는 그렇다는 얘기죠.
돈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복음으로부터 시작을 했겠지요, 캘빈 선생님이 당연히,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길가다 죽을 수도 있고, 잠자다 죽을 수도 있고, 돌연사를 할 수도 있고, 아프다 죽을 수도 있는데, 아픈 중에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예에요, 심각한 병에 걸렸어도.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었을 때의 그 마음가짐과 그 관심사를 가지고, 부활을 하게 되서 예

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업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놈의 돈 좀 어떡하든 많이 벌어보려 하다가, 신경을 너무 써가지고 혈압이 올라서 뇌출혈로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에 먹힌 채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마음에 돈으로 가득 차다든지, 뭐 자식으로 가득 찬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배설물을 마음에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돈도 배설물이 아니고, 자식도 배설물이 아니고, 이 육체도 배설물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면 배설물처럼 더러워지는 거예요.
마음 밖에 나두면 다 각자의 쓰임새가 있고,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내 마음 안으로 끌어들이면 배설물, 빨리 내보내지 않으면 독성이 생기는, 배설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날 때, 돈은 마음 밖에 원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주어진 돈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지 하고 돈을 밀쳐내면서 마음에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소망하다가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근데 돈을 마음으로 끌어들여버렸어요, 돈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바라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그야말로 배설물을 가득 안은 채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이끌려 가지고, 보좌의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식을 안고 있어도, 자식을 밖에 두면 멀쩡한 자식이고, 하나님의 뜻이 임해서 이끌어갈 자식인데, 내 마음 안에 끌어들이는 바람에, 내 자식이 내 안에서 배설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도 더러워지고, 뭐 자식은 밖에 있으니까, 또 내가 자식을 안에 끌어들여서 내 멋대로 키우려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면 자식까지 망가지는 겁니다.
나도 더러워지고 자식도 망가지고.
돈에 대한 뜻도, 돈을 끌어들이면 돈도 더러워지고, 나도 더러워지고, 돈에 대한 계획도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과 대면하게 되니까, 영벌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게 얘기 했잖아요, 이 세상은 다~ 너의 아버지의 것이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 그러면, 자녀들답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내가 다 먹여줄 거고 입혀줄 것이고, 내 뜻이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 거

바라거나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생각을 갖고 살아가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분명히 얘기했다고요.
근데 강단에서부터 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강단에서부터.
온통 교인들 마음속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소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깊은 잠에 들게 어둠 속에 빠져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재림을 향하여, 종말에 대하여 올인원 대비책을 갖고 있는 게 교회에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로 이루어집니까?
마음을 십자가 너머에 둔 사람들, 빛의 세계에 두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빛의 세계에 두고 있다가, 살아 있는 동안에 주님 만나면 할렐루야고, 그러다 죽더라도 100년 뒤에 오시던 1000년 뒤에 오시던 2000년 뒤에 5000년, 10000년 뒤에 오시더라도, 10000년이라는 갭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의 그 마음 상태 갖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바울이, 갭이 없이 딱 부활했다가 보니까,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이 서 있어요, 허?! 이게 뭐냐 탱크가 막 가요, 비행기가 막 떠다녀요 이게 뭐냐?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에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하늘의 권능들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해와 달이 없어지면 지구도 없는 거예요.
지구 위에 있는 7대 불가사의 같은 거 없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부활할 때, 루터와 캘빈이 부활할 때,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이고, 탱크고 자동차고 비행기고 아무것도 없어요.
새로운 세계 안에서, 영벌과 영생으로 들어갈 자들이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인류문명이라는 게 다 육체와 연관된 문명이고,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재림 때, 종말 때가 되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7대 불가사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미국의 문명, 중국의 발흥하고 있는 이런… 뭐 스마트폰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습니까?
공간과 시간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데.
그런 곳에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들 위해서 살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그리고 깨어 있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상황에서 십자가 보면서, 아휴~ 나는 주

님과 함께 죽었는데 2000년 전에, 그리고 내 마음은 이 세상을 향할 게 아니라, 하늘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마음이 따라 가야 되는 건데, 요것만 생각하며 살자 이겁니다.
이게 올인원 대비책이라는 거예요.
이 대비책으로 복된 삶이 이루어지면서, 종말에 관한 우리의 관계가 늘 살아 있는 관계로 깨어 있는 관계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복잡한 종말의 진행 상태에 우리의 마음이 빠져서, 부족한 지혜 모자라는 지혜로 파악하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올인원 대비책을 알려 주셨으니, 이 올인원 대비책을 항상 마음에 두고 깨어 있음으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종말의 사건들, 아니 지금 일어나는 일상의 사건들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